

제4장 AIDS 말기 증상과 현황

8. 에이즈 말기 환자의 증상과 돌봄의 실제

에이즈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이 더 많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지탄받고, 자책하게 되고, 친지나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외면당하거나 혹은 스스로를 격리시키기도 한다. 더욱 에이즈 말기가 되면 각종 기회감염들로 인한 신체적인 간호요구도가 높아지고 질병의 사회특성으로 인해 더 많은 영적간호가 요구된다. 이러한 질병의 특성으로 다른 어떤 대상자들보다 더욱 절실하게 호스피스가 필요한 대상자라고 하겠다.

그러나 에이즈 환자가 많은 미국의 경우도 호스피스 기관 중 에이즈 환자를 수용하는 기관은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에이즈 환자의 호스피스간호는 지금까지의 호스피스의 주된 이용객이었던 노인이나 말기 암환자와는 다르고 이들에 대한 간호가 다른 환자에 비해 시간과 노력과 인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며, 더 많은 사회 심리적 지지가 필요함에 비해 이에 대한 보상은 적고, 환자에게 감염될 수 있다는 위협에 대한 인식들이 호스피스 기관들에서 에이즈 환자의 입원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진행되는 에이즈 환자들은 기존의 임종환자 돌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던 친척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돌봄은 온전히 직원이나 자원봉사자의 몫으로 남아있게 된다. 더불어 말기로 진행되면서 각종 기회감염의 침범은 다른 어떤 임종 환자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환자들의 경제적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에이즈 환자가 많은 미국 등의 문제만이 아니다. 국내의 경우도 에이즈로 사망하는 경우가 늘어나

고 있는데 병원이외에 이들이 임종을 준비하고 맞을 장소가 특별히 없다. 에이즈 환자나 가족이 느끼는 사회적인 고립감은 미국보다 국내의 환자들이 더 심각할 수 있고,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도 혼자서 에이즈로 진행된 후 죽음까지의 진행을 거치고 경우도 종종 있다. 에이즈로 진행되면 사회적 편견 속에서 가족에게 마저 외면당한 이들이 돌아갈 곳이 어디가 있을까? 싶다.

에이즈 환자의 돌봄에 있어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이들에 대한 인식변화일 것이다. 에이즈환자는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에이즈에 걸린 것이 아니라 는 것, 바라만 봐도 감염이 될 것 같은 오해는 사실이다. 이러한 편견을 버리고 한걸음 다가가 함께하는 이웃으로, 도움을 베풀어야 할 의료인으로, 봉사자로 만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우선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아보도록 한다.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이해나, 전파경로, 감염되지 않기 위해 지켜야할 주의사항을 알고 나면 그 다음 말기 환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다른 환자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좀 더 주의해야 할 내용들만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몸 안의 바이러스를 전부 제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억제함으로써 면역기능이 회복되고 기회감염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HIV가 감소했다가도 약을 중단하면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알려졌고, 또한 계속 사용하던 환자에서도 HIV가 내성이 생겨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처음에 가졌던 희망적인 기대가 다소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1)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할까?

HIV감염자나 에이즈 환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도움

제4장 AIDS 말기 증상과 현황

수 있으려면 우선적으로 HIV와 에이즈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있다.

① 에이즈 즉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아주 천천히 감염된 사람의 면역계를 파괴시킴으로 궁극적으로는 신체가 어떤 질병과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HIV는 감염된 사람의 혈액, 정액, 질액, 유즙에 존재하며 감염을 확진할 수 있는 방법은 혈액검사뿐이다. 아직 이에 대한 예방 접종은 없으며 에이즈 환자의 완치는 낙관적이지 않은 않다. HIV와 에이즈의 치료목적은 첫째 감염자가 건강상태를 오래 지속시키는 것과 둘째, 에이즈 환자가 다른 질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다.

② HIV의 전파방법은 안전하지 못한 성행위, 주사침이나 주사기를 돌려가며 쓰는 행위 등을 통하여 감염될 수 있으며, 수혈이나 혈액제제의 투여로 발생하기도 한다. 환자의 혈액에 오염된 주사바늘에 찔리거나 환자의 피가 의료인의 눈이나 코, 상처가 있는 피부에 튀거나 묻음으로서 전파되기도 한다. 가정에서 면도기를 환자와 함께 나눠 쓰거나 환자의 혈액이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음으로서 감염되기도 한다.

③ 그러나 공기나 음식, 물 등을 통해서 전염되지 않으며 환자를 물은 모기 등의 벌레나 동물에 의해서는 전파되지 않는다. 환자의 피가 섞이지 않은 대변, 토물, 침, 땀, 소변 등으로는 전파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환자가 사용하였던 식기나 나이프, 포크, 숟가락, 좌변기 등을 통해서 전파되지 않으므로 감염자들이 먹는 것, 옷 입는 것, 목욕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들은 감염의 위험 없이 행할 수 있다.

2) 기본적인 안전과 감염관리

일단 에이즈 환자를 돌볼 때 할 것은 환자의 혈액 속에서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많다는 것과 환자들의 면역력이 지극히 약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로부터 간호제공자를 보호해야 함과 동시에 건강한 간호제공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일반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환자가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 원칙들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 모든 행위는 손 씻기로 시작하여 손 씻기로 끝내도록 한다.
- 환자의 대변, 소변, 혈액, 가래 등 분비물을 접촉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장갑을 벗은 후 손 씻기를 한다.
- 환자의 혈액 및 분비물은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린다.
- 환자에게 사용한 1회용 물품, 장갑 등은 비닐에 넣어 묶어 버린다.
- 혈액이나 분비물이 환경에 튀었을 경우는 장갑 착용 후 소독제로 닦아낸다.
- 본인의 손에 상처가 있을 때는 밀봉 드레싱을 하고 장갑을 착용한다.
- 주변환경은 항상 청결히 정리 정돈하여 놓는다.

(1) 손 씻기

① 손은 언제 씻을까?

- 화장실 다녀온 후
- 음식 준비하기 전, 환자의 식사 도와주기 전
- 환자의 개인위생을 도와준 후
- 환자 목욕 도와준 후
- 기침, 하품, 코를 만진 후

제4장 AIDS 말기 증상과 현황

- 쓰레기 만진 후
- 음식을 먹기 전
- 병실을 떠나기 전

② 어떻게 씻을까?

일반적으로 주름진 곳, 습하고 따뜻한 곳에서 미생물의 정착이 쉽게 이루어진다. 손가락 사이, 손톱 끝, 손금 부위 등이 이런 부분이다. 일반적인 비누와 물로 문지르면 쉽게 제거될 수 있으며 오염이 심하면 좀 더 오래 문지르도록 한다.

- 반지 등 손의 장신구는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신다
- 손의 모든 표면(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끝 등)을 비누나 소독제로 잘 문지르면서 닦는다. 15초 이상 문지른다. 비누를 사용해야, 문질러야 균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명심하자.
- 흐르는 물에 비누가 없어질 때까지 잘 행군다.
- 종이타올로 손을 건조 시킨다
- 싱크가 없는 경우는 물 없이 사용하는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다



손가락 사이를 잘 문지른다 손금과 손끝을 잘 문지른다 엄지손가락도 잘 문지른다 종이타올로 손을 건조시킨다

(2) 장갑 및 보호장비의 착용

① 장갑 1)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배설물 등으로부터 간호제공자의 손이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고, 2)간호제공자의 손에 상재하거나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미생물이 환자에게 옮겨갈 가능성을 줄여준다. 목적에 따라 멸균되었거나 멸균되지 않은 깨끗

한 장갑, 비닐이나 라텍스 장갑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간호제공 시에는 깨끗한 비닐장갑을 사용하면 충분한다. 장갑을 끼는 것만큼 벗는 것이 중요한데, 사용 즉시 벗지 않을 때는 오히려 주변 환경이나 다른 환자에게 병원체를 직접 전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1회용 비닐장갑은 재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이 튀거나 었지러질 가능성이 많은 경우는 가운이나 마스크, 보안경등 필요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하지만 실제 보호자가 수행하는 일상적인 간호에는 이러한 보호 장비가 필요한 경우는 흔하지 않다. 에이즈 환자가 기회감염으로 결핵을 앓는 경우가 흔하다. 결핵에 대한 치료가 완전히 본 궤도에 오르기 전에 결핵에 대한전파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경우 환자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3) 환경관리

① 바닥, 벽, 탁자 등은 대부분 감염 전파원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병실의 청소에는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고 접촉이 많은 침상, 침대난간, 침상주변의 기구들은 바닥이나 벽보다는 좀 더 빈번하게 적절한 방법으로 청소하도록 한다. 병원 환경청소에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는 약한 수준의 소독제들로서 100배 희석한 락스제품이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환경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모든 액체 쓰레기는 화장실 변기에 버리도록 한다. 이때 벽이나 주위에 튀지 않도록 주의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정액, 질액, 유즙이 묻은 휴지나 상처를 치료한 드레싱 등은 새지 않

제4장 AIDS 말기 증상과 현황

는 비닐 등에 넣어서 꼭 묶도록 한다. 밖으로 새지 않도록 신문지 등을 넣어서 한 번 더 싸 맨 후 의사나 간호사와 함께 지역 사회에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한다.

③ 입원환자의 경우 오염된 세탁물에 의해 병원균이 전파될 위험률은 적지만 운반 도중 직원의 피부나, 의복, 주변환경(침대, 침대 난간, 침대 옆 물건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세탁물은 병실 내에서 분리수거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의복이나 린넨 등은 정해진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가정에서라면 분리하여 염소계 표백제를 첨가하여 세탁하면 된다.

(4)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될 경우

주사침 찔림은 의료인들이 흔히 경험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보호자나 간호제공자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환자의 체위변경이나 시트 정리 등 도움을 줄 때 혹시 사용한 바늘이나 날카로운 기구가 떨어져 있는지 주의하여 살펴 보도록 한다. 만약 찔렸거나 상처가 난 경우라면 간호사 사무실에 즉시 이야기 하도록 한다. 찔린 부위를 꼭 눌러 피를 짜내도록 하고 소독제로 닦아낸다.

환자의 혈액이나 정액, 질액, 유즙 등의 체액이 환자를 돌보는 사람의 눈이나 코, 입등의 점막이나 상처 있는 피부에 튀거나 묻었을 경우는 즉시 흐르는 물로 충분히 닦아낸 후 의료진에게 이야기하여 조치를 받도록 한다.

(5) 간호제공자의 주의 점

① 상처가 있으면 꼭 드레싱을 할 것
손을 베었거나 기타 상처가 돌보는 사람의 손이나 피부에 있

으면 꼭 드레싱을 해서 상처를 덮어놓도록 한다. 또한 손에 열이 나면서 물집이 잡혔거나 염증이 있으면 환자를 돌보지 않도록 하나 꼭 필요한 경우는 반창고 등으로 밀폐시키도록 한다. 종기나 농가진, 대상포진 등이 생겼으면 환자와 함께 한 집에 있지 않는 것이 좋으며,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경우도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다.

② 아픈 사람은 멀리 할 것

에이즈 환자에게는 감기도 위험하므로 누구든지 아픈 사람의 방문이나 환자를 돌보는 것은 제한하도록 한다. 그러나 돌볼 사람이 없을 경우는 환자 방에 들어가기 전에 얼굴에 잘 맞고 여과력이 좋은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③ 수두의 증상을 잘 살필 것

에이즈 환자에게 수두는 치명적이다. 수두환자와 같은 방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최근에 수두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최소한 3주정도 에이즈 환자를 방문하거나 간호하지 않도록 하며, 가까운 사람이 수두를 앓고 있는 사람이 환자를 간호해야 할 경우에는 환자 방에 들어갈 때마다 여과율이 높은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환자와 접촉 전후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한다. 수두의 유행이 있는 시기에는 산책이나 외출을 하지 않도록 한다.

입가나 손에 단순포진이 있는 사람은 환자와 접촉을 피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상처를 완전히 덮도록 하고 손을 잘 씻도록 한다. 단순 포진바이러스는 에이즈 환자에게서 수두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이 원고는 자원봉사자 교육교재인 호스피스총론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